

裝幀 이미지의 迷妄

李重漢

서울신문논설위원·본지 편집위원

우리의 책의 裝幀이 책의 역사가 만들어진 관례를 벗어나 있다는 것은 이 분야 전문적 관점에서는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그 대표적 항목이 洋裝과 紙裝의 의미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 같은 것이다. 오래두고 보아야 할 책이 洋裝本이 되고, 보고 버려도 될 책이 紙裝本이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보고 버려도 될 책이 더 많이 호화양장본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관심사가 되지 않으면서

더 혼란스럽게 있는 것은 표지의 디자인 부분이다.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한 평균적 公衆독자용 도서와 전통적 교양도서나 전문분야별 연구서들의 구분이 그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장정의 디자인으로써 구분되도록 하는 것이 표지디자인에 있어서는 하나의 규칙이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용적 노력이다.

그래서 이 구분은 그 사회의 전체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약속이 된

다. 실제로 日書나 西歐書나 이들의 書架앞에 서면 이것이 소설인지, 저것이 철학서인지가 장정의 첫 인상만으로도 분명히 식별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店頭에서는 이 디자인의 이미지적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소설책이나 사상서이나의 분별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양서이나, 雜書나와 분별마저 되지 않는다. 책의 크기도 통일돼 있고, 요란스럽게 선정적이고자 하는 디자인의 기본감각들도 통일돼 있다. 그래서 예컨대 알베르 카뮈와 시드니 셸던이 장정으로써 분별하기 어렵고, 니체와 고르바초프와 갈브레이드까지도 프레드릭 포사이드와 식별되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北韓原典들까지 포

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원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소설 「민중의 바다」는 우리의 디자인적 균일화 속에서 해롤드 로빈스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꽃피는 처녀」는 북한식 붓글씨체 글자를 표지에 드러나게 씌으로써 그것이 북한원전임을 이미지적으로 성공시켰다. 북한원전들이 먼저 개성화된 문화가 되는 셈이다.

이 迷妄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 문화의 세련화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목표라면, 책의 디자인들도 한단계 더 책의 성격별 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출판저널

통권 제34호/1989년 1월 20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亨秀
편집주간—李勝羽
편집차장—康鐵柱
기자—吳愛里 南眞祐 金芝媛
디자인—尹貞子

포토디렉터—朱明德
사진—全惠敬

업무·광고—梁承杓 崔允源
洪先基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동국전산주식회사

출판저널—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내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康賢斗 | 康泓彬 | 權德周 | 權寧珉 |
| 權五聖 | 金炳翼 | 金聖坤 | 金容雲 |
| 金禹昌 | 金仁會 | 金治洙 | 盧命完 |
| 潘星完 | 邊衡尹 | 徐沈善 | 徐淵昊 |
| 成完慶 | 宋相庸 | 慎錫夏 | 安秉永 |
| 安輝濤 | 吳光洙 | 劉載天 | 陸明心 |
| 尹錫範 | 李康洙 | 李康淑 | 李璟薰 |
| 李光周 | 李萬烈 | 李明賢 | 李相日 |
| 李元履 | 李重漢 | 李姬載 | 張會翼 |
| 鄭用琢 | 鄭雲映 | 鄭元植 | 鄭鎮弘 |
| 鄭丙圭 | 曹大欽 | 趙玉羅 | 陳德奎 |
| 車明亨 | 崔成眞 | 崔元植 | 崔載賢 |
| 崔錦車 | 韓相震 | 韓勝憲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겨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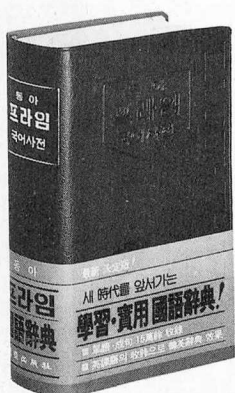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2월 15일까지 「출판저널」 독자퀴즈 담당자 앞(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36호(2월 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동아프라임국어사전」(정가 8,5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프라임 國語辭典 동아출판사 펴

문제1

백제의 학자 王仁는 서기 258년 일본 왕실의 초청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 태자의 사부로 활동했다. 당시 그는 「논어」와 함께 또 한편의 책을 가지고 갔는데, 周興嗣가 지은 四言古詩들로서 「焉哉乎也」로

끝나는 이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1. 주역
2. 맹자
3. 천자문

문제2

1314년, 고려 제26대 충선왕이 고려와 元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수많은 책들을 비치하여 元의 수도 연경에 설립한 독서당의 정식명칭은 무엇인가?

1. 千卷堂
2. 萬卷堂
3. 億卷堂

문제3

앙드레 지드가 1909년에 발표한 장편소설로, 신약성서 「마태복음」 제7장 13절에서 따온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

1. 좁은 문
2. 지와 사랑
3. 지상의 양식

문제4

영국의 문호 서머셋 몸의 자전적 소설로 일컬어지는 작품은?

1. 인간의 굴레

2. 달과 6펜스
3. 캐탈리나

문제5

우리나라 최초의 新體詩는 최남선이 발표한 「해에게서 소년에게」이다. 이 작품이 실린 국내 최초의 근대적 월간잡지는 무엇인가?

1. 幼年
2. 少年
3. 青年

출제·홍윤기

제32호 독서피클즈 정답

「독서피클즈」에 응모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2호(12월 5일자) 피클즈에 응답해 온 엽서는 92통, 이중 정답은 75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 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①그리스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완전한 성경은 「바티칸 사본」이지만,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더 오래된 성서로는 「死海文書」가 있다.

2. ①Oxford English Dictionary

3. ①천로역정

영국작가 J. 번연의 2부작 소설로서 1부는 1678년, 2부는 1684년에 간행됐다.

4. ②홍길동전

조선조 광해군 때 허균이 지은 한글소설로, 嫡庶의 신분차별 타파와 부패정치를 통격한 우리나라 근대 소설의 선구이기도 하다.

당첨자

김현숙(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2-20 동아아파트 가동 101호)
양승학(서울 중구 황학동 485번지 9동 1번)

라근영(경기도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159-2 라홍주씨댁 내)

김기세(충남 대전시 서구 변동 23-54)

육성환(전북 전주시 진북2동 현대 Apt 502호)